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미 인플레 꾸준히 감소... 11월 인플레, 약간 하락
- WSJ: 미 노동 시장 점차 둔화... 여전히 강세 수준
- CNBC: CNBC 설문, “연준 내년 중순에 금리 인하 착수... 소프트랜딩”
- GoldmanSach: 미 경제 ‘소프트 랜딩’ 향한다... 내년 GDP 2.1%

[금융]

- Goldman Sachs: 내년 S&P 500 지수는 4700 포인트

[오일]

- Bloomberg: 원유 공급과잉, OPEC+ 감산 효과 상쇄하는 중

[미중 경제]

- WSJ: 미 기업들, 중국 여파 피하기 힘들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UAW, 현대자동차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발
- WSJ: 메이시스 백화점이 인수제안을 받은 이유
- Bloomberg: EY, 인력 축소에다 신규 채용도 늦쳐
- Bloomberg: 렌터카 회사들, 전기차 대여 어려움 겪어
- CNN Business: MS, ‘종업원에 대한 AI 여파’ 논의에 노조 합류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Inflation Cooled Slightly as Underlying Pressures Remained Stubbornly High

11월 미 연간 인플레, 10월 보다 약간 하락

- 11월 미 인플레가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 구체적으로 개솔린 가격과 내구재 가격 하락이 주택과 운송 그리고 다른 서비스 상승세를 상쇄했다.
- 오늘 화요일 미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 동월 대비 3.1%로 나타났다. 10월 연율 3.2%보다 약간 떨어졌다.
-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% 상승했다. 10월 연간 상승률과 같은 수치. 월간 기준으로 핵심 물가는 0.3% 상승하여 연준의 인플레 목표 2%에 부합하는 것 보다 빠르게 상승했다

WSJ 기사

WSJ: U.S. Jobs Market Cools Again, Conference Board Employment Trends Index Shows

미 노동 시장 점차 둔화... 여전히 강세 수준

- Conference Board의 11월 고용 추세 지수는 10월의 하향 조정 수치 113.09에서 113.05로 약간 감소했다.
- 이 지수는 지난해 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.
- 한마디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회가 점차 줄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CNBC: Fed to start cutting rates midyear in 2024 with high chance of soft landing, CNBC Fed survey finds

CNBC 설문, “연준 내년 중순에 금리 인하 착수... 소프트랜딩”

- CNBC의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연준이 내년 6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.
- 응답자의 47%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월의 비율보다 5포인트 올랐다.
- 반면에 내년 침체 가능성은 8포인트 낮은 41%로 줄어들었다. 설문 응답자 35명에는 이코노미스트, 전략가, 애널리스트들이다.
- 연준은 내일 수요일 금리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.

CNBC기사

GoldmanSach 보고서: 2024 US Economic Outlook: Final Descent

미 경제 ‘소프트 랜딩’ 향한다... 내년 GDP 2.1%

- 미국 경제는 올해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고 소프트랜딩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.
- 물론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균형을 잡지 못했고 인플레이의 지속적인 하락을 맞아내지는 못했으나 예상보다 강한 GDP 였다.
- GS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미 GDP 성장률은 4/4분기 기준으로 1.8% 성장이 예상되고 연간 기준으로는 2.1%로 예상된다.

GoldmanSach 보고서

[금융]**Goldman Sachs보고서: 2024 US Equity Outlook: "All You Had To Do Was Stay"****내년 S&P 500 지수는 4700**

- 내년말에 S&P 500의 전망은 4700으로 12개월 가격 상승률은 5%이며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은 6%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GS조사팀은 대선기간의 연 평균 8%보다 조금 못미치는 수익률이 예상하고 있다.

GoldmanSach 보고서

[오일]**Bloomberg: Oil Slips as Oversupply Concerns Offset Production Curbs****원유 공급과잉, OPEC+ 감산 효과 상쇄하는 중**

- OPEC+ 의 감산 발표에도 불구하고, 원유 공급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.
- 글로벌 기준 가격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 선물의 경우 지난주에 OPEC+ 외의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다.
- 오일 가격은 현재까지 7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2018년 이래로 가장 긴 기간이다.
- 중국 소비 성장이 둔화하고,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, 내년 1분기에도 유가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미중 경제]**WSJ: U.S. Companies Are Finding It Hard to Avoid China****미 기업들, 중국 여파 피하기 힘들다**

-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노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멕시코 등의 공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.
- 그러나 중국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.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당수 제품들이 중국 기업들이 소요하는 공장에서 생산된다. 이들 중국기업들은 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신지를 확대하고 있다.
- 작은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중국 공급업체의 투입물로 통해서 만들어진다.

-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은 분리되기는 커녕 한두개 연결 고리만 추가되어 복잡성과 비용이 늘어나는 형국이다.
- 미국이 주창하는 ‘중국으로 부터의 다변화’는 제한적이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UAW files unfair labor practice charges against Hyundai, Honda and Volkswagen**UAW, 현대자동차 등부당노동행위로 고발**

- 전미자동차노조(UAW)가 전미 노동위원회(NLRB)에 혼다, 현대 그리고 폭스바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.
- 노조 관계인은 이들 기업이 근로자들이 UAW에 합류하는 것을 방해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.
- UAW의 이런 행보는 이 단체가 미국 내 13개의 비노조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2주 뒤에 나타났다.
- 이에 현대는 반박했으며, 성명을 통해 노조가 언론을 통해 밝힌 사건의 성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,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 말했다.

CNBC 기사

WSJ: Macy's Billion-Dollar Question: What's More Valuable, Real Estate or the Business?**메이시스 백화점이 인수제안을 받은 이유**

- 메이시스가 Arkhouse와 Brigade Capital Management에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소매기업의 가치가 부동산에 있다는 진부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.
- 리서치 기업인 GlobalData에서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Neil Saunders는 메이시스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며, 이는 지난주 금요일 메이시스 시가총액인 48억 달러보다 높다.
- 이어서 Saunders는 메이시스의 소매사업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, 다년간의 만성적인 실적 악화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.
- 이 기업의 올해 9월까지 순 매출은 1백49억 7천만 달러로, 같은 기간 1백62억 2천만 달러의 순 매출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7.7% 감소했다. 수익은 22% 감소해 1억7천 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.
- Arkhouse와 Brigade Capital Management는 이번 인수 제안의 의도를 밝히지 않았음에도, 확실히 메이시스의 부동산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Bloomberg: EY Says It's Cutting US Jobs, Delaying Start Dates for New Hire**EY, 인력 축소에다 신규 채용도 늦쳐**

- 거대 컨설팅 기업인 Ernst & Young LLP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, 신규 채용 또한 늦추고 있다. 이는 기업 컨설팅에 대한 수요감소로 업계 전반에 걸친 침체가 원인으로 보인다.
- EY의 미국 지사 성명에 따르면, 고용감축은 기업 내 일부 직원들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.
- 또한, EY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면서, 이번의 결정은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공정을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Car-Rental Firms Confront Early Bumps in the Road to EVs**렌터카 회사들, 전기차 대여 어려움 겪어**

- 렌터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물리적 자산인 수많은 차량의 감가상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.
- BNEF 연구에 따르면, 내연기관 차량보다 특히, 전기차 대여 사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. 렌터카 회사가 차량에 1천 달러를 투자할 때, 내연기관 차량은 주당 8.40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전기차는 주당 5.2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.
- 또 다른 문제는, 대여 차량을 중고 시장에 판매할 때이다. 유럽은 렌터카 기업이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반납할 수 있지만,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렌터카 기업들은 중고차 가격 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.
- 팬데믹 이후 차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,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, 전기차 차량의 잔존가치는 2022년 3월에 비해 2023년 18%에서 30%까지 떨어졌다.
- 중고차 가격의 또 다른 타격은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생산기업들이 신차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중고차의 수요가 줄어들고, 재판매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Microsoft to include labor unions in discussions on AI's impact to workers

MS, '종업원에 대한 AI 여파' 논의에 노조 합류

-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논의에 노조를 참석시킬 것이라 말했다.
- 어제 월요일, MS가 미국노동총연맹(AFL-CIO)과 미래 일자리에 AI가 미칠 영향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것이다.
- MS와 AFL-CIO는 공동성명에서 이번의 파트너십은 노동단체와 기술 기업 간의 최초 AI 분야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.
- 그러면서, 이번 파트너십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, AI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노조 및 직원들과 공유하고 둘째, AI 기술 개발에 근로자의 관점을 고려하며 셋째, 근로자의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공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미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.1%↑...예상치 부합, 美 뉴욕연은 설문 "1년 뒤 물가 3.4%↑ 기대...2년여 만에 최저"

올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2일(현지시간) 밝혔다.

이는 미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(3.1%)에 부합하는 결과다.

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3.2%)과 비교해 상승률이 둔화했다.

전월 대비로는 0.1% 상승해 시장 전문가 예상치(0.0%)를 웃돌았다.

변동성이 큰 에너지·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.0%, 전월 대비 0.3% 각각 상승해 시장 전문가 예상치에 모두 부합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

